

## 베트남, 올 電力공급 好轉 전망 - 절전위한 단전은 없을 듯 -

베트남의 94년도 예상 電力생산량은 150억KWh로 예년보다 30억 KWh가 늘어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에너지부에 따르면 올해 최소한 4개의 발전시설이 가동에 들어가므로 전력생산이 20% 늘어나는 반면 산업생산 증가율은 15%로 전력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보고있다.

남부지역의 고질적인 전력공급 부족현상은 베트남 정부가 Tra An 발전소와 北·南 送電線 건설사업에 집중투자, 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고 또 乾期때 수력발전소 저수량에 따라 전력공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94년에는 Ba Ria 가스발전소 가동과 Tra An 및 Da Nhim 발전소 저수량이 충분해 건기에도 남부지역 전력부족 상태가 심각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남부 전력공사는 남부지역 전력생산량은 93년 보다 17.5% 늘어난 55억KWh로 호치민市 지역 전력공급은 기술문제로 간헐적인 중단은 불가피하나 주기적인 절전형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 ◆ 會員社 動靜 ◆

## 金星計電(株), 인버터 PLC사업 強化

金星計電(株) (代表 : 白重英)가 인버터 PLC분야에 대한 사업을 대폭 강화. 이부분의 국내시장을 장악한다는 목표아래 올초부터 현재의 전자영업부의 인버터과와 PLC양과를 양부로 승격시켜 사업부분을 이원화시켰다. 따라서 올해부터 인버터 부문 200억원, PLC 부문 200억원의 매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있다. 인버터 부문에서는 지난해말 국산화에 성공한 IGBT 제품을 올해부터 본격시판할 예정이며, 벡터 제품도 자체 국산화, 양산에 나설 계획으로 PLC 부문은 자체 개발품인 「마스터 K」의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려 공급하며 지난해 개발에 성공한 「마스터 K-1000」

또한 지난해 발판을 구축한 해외시장에도 적극진출 유럽·남미·동남아 시장에도 수출 물량을 늘려 나갈 계획이며, 90년부터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는 글로벌 PLC의 시제품을 선보일 계획으로 초·중·대 용량의 시스템 공급도 가능해 졌다.

## 大韓電線(株), 삼양금속 압연 사업부문 양수

大韓電線(株) <代表 : 兪彩濬>가 2월 28일을 기준으로 계열사인 삼양금속 스테인레스 압연 사업부문의 공장과 설비, 인원을 양수, 주력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삼양금속은 지난 62년 창립된 이래 스테인레스 압연사업에 주력해 왔으며 지난해 6월 경북 영주에 대지 4만 5천평, 건평 1만 5천평 연간 압연 42만톤 규모의 국내최대 알루미늄 압연공장을 준공, 양산체제로 들어섰으며 특히 미국의 KAISER 알루미늄사와 기술제휴로 첨단설비와 일괄 생산공정을 완비해 국제적인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 東邦電機工業(株), 中에 변압기 합작 공장

변압기 전문제조업체인 東邦電機工業(株) <代表 : 梁友鉉>가 변압기 업체로는 최초로 中國과 합작 공장을 추진중이다.

지난 91년부터 면밀한 검토와 검증 아래 추진돼온 중국 현지공장 건립은 최대 역점 사업중의 하나이다. 올 상반기중 착공해 연말에는 완공될 현지 공장은 매달 1천 5백여대의 변압기를 생산, 중국은 물론 제3국에 수출할 예정이다.

특히 현지 공장준공을 계기로 협소한 국내시장을 탈피, 거대한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교두보를 쌓을 계획이다.

현재 중국은 일주일에 한번정도 제한 송전을 할 정도로 전력사정이 열악하나 개방화의 여파로 가전 제품 판매가 급증하고 電化사업이 활발히 추진돼 잠재 수요가 엄청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같은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동사는 국제전기위원회 변압기 품질규격(IEC) 기준에 준하여 실시된 3상 3천 KVA(22.9KV~3.3KV) 개발시험을 통과, 제품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 받았다.

## 회원사 품질관리 등급 획득

업 체 명	대 표 자	사정상품명, 가공기술명 및 규격	사정등급
(주) 삼 지 중 전 기	이 종 선	폐쇄배전반	2 갑
영 화 산 업 전 기 제 작 소	공 호 영	계기용 변성기 (일반계기용, 전력수급용)	2 갑

### ◆ KOEMA 消息 ◆

## '94年度 第1次 機械類·部品·素材 國産開發 對象課題 選定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지난 1月 19日 “전기기기 국산개발 협의회”를 열고 그동안 업계로부터 접수한 電機부문 기계류·부품·소재 국산개발 고시대상과제를 선정, 상공자원부에 제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동방전기공업(주)의 “SF<sub>6</sub> 가스절연 배전용 주상변압기 개발” 등 총 12개의 시제품 개발대상 과제와 우신정공(주)의 “FDD용 소형직류 전동기 양산화” 양산대상 1개 품목으로 이들 과제가 상공자원부로 부터 고시되면 각종 정책자금 취급기관으로 부터 국산화에 필요한 시제품 개발자금 및 양산에 필요한 설비자금등의 지원을 받게된다.